

#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편성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가. 세입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935억 2천2백만원의 1.9%에 해당하는 36억 8천만원이 증액된 1,972억 2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197,202,180	193,522,083	3,680,097	1.9%

#### 나. 세출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728억 5천4백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45억 4백만원이 증액된 5,873억 5천8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문화본부	(×153,530,368) 587,358,130	(×149,818,032) 572,853,845	(×3,712,336) 14,504,285	(×2.5%) 2.5%

## 4. 검토의견

###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935억 2천2백만원의 1.9%에 해당하는 36억 8천만원이 증액된 1,972억 2백만원이며,
-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728억 5천4백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45억 4백만원이 증액된 5,873억 5천8백만원임.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498억 1천8백만원의 2.5%인 37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된 1,535억 3천만원임.

####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세입예산	197,202,180	193,522,083	3,680,097	1.9%
세출예산	(×153,530,368) 587,358,130	(×149,818,032) 572,853,845	(×3,712,336) 14,504,285	(×2.5%) 2.5%

##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총 10건, 335억 5천5백만원으로, 증액사업 8건, 335억 2천2백만원, 감액사업 2건, 3천2백만원임.

####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총계 : 10건(증액 8건, 감액 2건)		37,234,744	3,680,097	33,554,647
1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임대료	118,161	134,860	△16,699
2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1,328,000	1,068,000	260,000
3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186,500	99,500	87,000
4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7,938,940	16,006,980	1,931,960
5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568,324	13,228,239	340,085
6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43,004	32,504	10,500
7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352,877	331,400	21,477
8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413,000	371,000	42,000
9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241,822	2,222,508	1,019,314
10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 등 임대료	44,116	59,656	△15,540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등은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해 증액된 사업들이며,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임대료,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 등 임대료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에 따라 6개월('20.2. ~ 7.)동안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감액된 사업임.

##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총 15건, 145억 4백만원으로 증액사업이 12건, 83억 4백만원, 신규사업이 3건, 62억원임.

###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총계 : 15건	(x153,530,368) 587,358,130	(x149,818,032) 572,853,845	(x3,712,336) 14,504,285
1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 전통사찰 보수정비	(x1,328,000) 1,992,000	(x1,068,000) 1,602,000	(x260,000) 390,000
2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x186,500) 279,750	(x99,500) 149,250	(x87,000) 130,500
3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x17,938,940) 27,273,630	(x16,006,980) 24,358,260	(x1,931,960) 2,915,370
4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출연금	34,881,827	34,340,000	541,827
5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신규)	3,200,000	-	3,200,000
6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산업지원(신규)	2,000,000	-	2,000,000
7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x13,568,324) 19,830,176	(x13,228,239) 19,030,170	(x340,085) 800,006
8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x43,004) 167,367	(x32,504) 152,367	(x10,500) 15,000
9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x352,877) 5,565,708	(x331,400) 5,522,754	(x21,477) 42,954
10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x413,000) 945,000	(x371,000) 885,000	(x42,000) 60,000
11	박물관과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신규)	1,000,000	-	1,000,000
12	문화시설과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	1,867,500	1,530,500	337,000
13	문화시설과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2,532,500	3,065,500	533,000
14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3,241,822) 6,483,734	(x2,222,508) 4,445,016	(x1,019,314) 2,038,628
15	서울도서관	책방활성화	800,250	300,250	500,000

## 다. 세출예산 편성사유별 내역

### ○ 세출예산을 편성사유별로 살펴보면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8건, 63억 9천2백만원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신규 및 증액 4건, 67억원
-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에 따른 보전 1건, 5억 4천2백만원
-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1건, 5억 3천3백만원
- 부지매입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증액 1건, 3억 3천7백만원

## 라.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검토

### (1)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29억 1천5백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0억 3천9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8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정비(3억 9천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1억 3천만원),

한양도성 보수·정비(6천만원),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4천3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1천5백만원) 등

총 8건, 63억 9천2백만원이며, 이번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145억 4백만원의 45.8%에 해당함(표, p7).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x17,938,940) 27,273,630	(x16,006,980) 24,358,260	(x1,931,960) 2,915,370	- 코로나19 대책 발표에 따른 문체부 예산 증액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3,241,822) 6,483,734	(x2,222,508) 4,445,016	(x1,019,314) 2,038,628	- 문체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
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x13,568,324) 19,830,176	(x13,228,239) 19,030,170	(x340,085) 800,006	- 문화재청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
4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 전통사찰 보수정비	(x1,328,000) 1,992,000	(x1,068,000) 1,602,000	(x260,000) 390,000	- 문체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
5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x186,500) 279,750	(x99,500) 149,250	(x87,000) 130,500	- 문체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
6	한양도성 보수·정비	(x413,000) 945,000	(x371,000) 885,000	(x42,000) 60,000	- 문화재청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
7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x352,877) 5,565,708	(x331,400) 5,522,754	(x21,477) 42,954	- 문화재청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
8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x43,004) 167,367	(x32,504) 152,367	(x10,500) 15,000	- 문화재청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
합계		(x37,072,467) 62,537,365	(x33,360,131) 56,144,817	(x3,712,336) 6,392,458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9만원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국고보조 확정 통지가 2019년 12월 18일 이루어졌고, 코로나19 대책 발표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증액(2020.3.20.)으로 기존 284,160명에서 17,425명이 증가한 총 301,585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공공도서관 자료실을 기존 18시에서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4개 자치구 총 82개 공공도서관 240명이며, 2020년 2월 4일 국비 증액확정이 통보되어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보존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확정통보가 2019년 12월 31일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 교부되는 사업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임.

## (2)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및 증액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32억원),

서울디자인산업지원(20억원),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10억원)

책방활성화(5억원) 등

총 4건, 67억원이며, 이번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145억 4백만원의 55.1%에 해당함(표, p9).

<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및 증액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1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신규)	3,200,000	-	3,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진작가의 꿈의 무대가 되는 서울 대표 공공미술 작품 설치 추진</li> <li>- 지원대상 : 공공미술 신진작가 100명</li> <li>- 지원내용 : 3단계 작품공모에 따른 단계별 제안보상금 지급 (3단계 100만원, 2단계 500만원, 3단계 1,000만원)</li> <li>- 활용방안 : 최종 선정작 제작 및 설치</li> <li>• 침체된 공공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는 작품공모</li> <li>- 참여대상 : 국내외 유명작가 5인</li> <li>- 활용방안 : 우수작 확보 및 연내 실시절계 등을 거쳐 차년도 구현</li> </ul>
2	서울디자인산업 지원(신규)	2,000,000	-	2,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포스트코로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li> <li>- 1차 : 공모 500건 (각 2백만원)</li> <li>- 2차 : 우수 아이디어 40건 선정, 재단 사업과 연계하여 상품화·실행 지원 (40건 * 22백만원)</li> </ul>
3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신규)	1,000,000	-	1,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유망 신진 미술작가 활동 보장을 위한 작품 구입 ( 300백만원 * 300점)</li> <li>•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유희공간 발굴하여 기획 전시 등 개최</li> </ul>
4	책방활성화	800,250	300,250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점을 위해, 서울시 소재 중소 출판사의 우수도서 구매 후 취약시설에 보급</li> <li>- 도서선정 : 우수도서선정위원회 구성</li> <li>- 사업공모 : 서울시 소재 중·소출판사</li> <li>- 100종 내외 선정 / 1개 서점당 1종 500만원 이내 구입</li> </ul>
합계		7,000,250	300,250	6,700,000	

-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확대 기획·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정서를 위해 국내 신진작가를 발굴·지원하며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활성화하고자 3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계획 예산 세부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 금액	세 부 내 역	
총 계		3,200,000		
월드컵 공원 작품 공모 및 설치 (30억)	계	3,000,000		
	시설비	소 계	2,998,000	
		지반조사/ 구조검토	30,000	· 지반조사 및 구조검토비 = 20,000 · 전문가 자문, 사업타당성 검토 등 = 10,000
		작품공모	300,000	· 여론조사, 심사 및 자문비 = 40,000 · 작가 제안보상금 = 260,000
		작품 제작 설치	2,400,000	· 실시설계, 기초공사, 제작설치 = 2,200,000 · 당선작가 창작지원비 = 200,000
		개막식 운영비	30,000	· 장비대여, 개막행사 개최비 = 30,000
		전시 및 홍보	170,330	· 홍보영상 제작, 전시물제작 운영=170,330
		사업운영 관리비	67,670	· 기획(운영감독) 인건비×6개월 =11,820 · 사업관리 실무자 인건비×6개월 = 55,850
	사무 관리비	소 계	2,000	
		제안서 평가 운영비	2,000	·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수당 및 회의 운영비
계		200,000		
난지 한강 공원 지명 공모 (2억)	사무 관리비	실시설계 구조검토	30,000	·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실시설계 = 30,000
		사업운영 관리비	63,955	· 책임연구원 인건비×6개월 =19,378 · 사업관리 연구원 2인 인건비×6개월=44,577
		작품공모	100,000	· 작가 제안보상금(20백만원 × 5인)= 100,000
		심사위원회 운영비	6,045	· 제안서 심사 위원회 운영비 =2,000 · 작가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 운영비 =4,045

이 사업을 보면 ① 월드컵공원 작품공모 및 설치(30억원), ② 난지한강공원 지명공모(2억원)를 하는 것으로, ① 월드컵공원 작품공모는 3단계 공모(100명 → 30명 → 10명)를 통해 최종 1작품을 선정하고자 하고, 단계별 선정자들에게는 제안보상금(1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② 난지한강공원 지명공모는 '21년(소요예산 100억원)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국내외 중견작가 대상 작품공모의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이 두 사업은 공공미술 설치라는 최종 결과는 같으나 사업 목적이나 진행방식 등의 측면에서 같은 사업으로 편성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는 지난 4월, ① 한강 노들섬, ② 서울식물원, ③ 서울월드컵공원, ④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상부 공원 등에 서울 대표 작품설치에 대해 시장보고를 하였고, “서울 곳곳을 랜드마크화 하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시장요청과, 4~5월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임.

####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주요 내용】

- 코로나로 인해 도시 예술로서의 공공미술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해졌음
  - 당장 국내외의 많은 전시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가지원책으로 많은 작가들의 참여와 시민의 담론을 모으는 장을 통해 서울 대표 공공미술 작품 추진 가능
  - 대형 프로젝트 추진만으로 침체된 미술계가 움직이는 동력을 얻을 것이며, 대표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될 것임
- ① 월드컵공원 작품공모 및 설치(30억원)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울은 미술관’ 사업과 유사한 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은 미술관’을 통해 총 21작품이 설치되었고, 참여 작가 총 33명 중 중견작가 29명(외국작가 3명 포함)인데 반해, 신진작가는 4명 밖에 없으므로 신진작가를 발굴·지원하는 방식에 공감하는 바이나

이번 추경에 함께 편성된 디자인산업 지원 20억원, 신진미술인 지원 10억원에 비해 조각분야에 더 많이 편성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사업에서 신진작가에 대한 정의조차 정립되어 있지 못한 점도 문제이므로

이 사업은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시민과 작가가 함께 협업해서 결과물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이나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중 청계천의 ‘스프링’, 강남구 싸이 ‘말춤’, 한강예술공원의 ‘북극곰’, 서울로7017의 ‘슈즈트리’ 등은 대중 정서와 미적 가치가 반영된 ‘공공미술’과는 거리가 먼 조형물이자 전시행정 사례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으며,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내재된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용자 관점을 우선하여 공동체에 의견을 묻고 협업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지 혈세를 낭비하는 상징 조형물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평론가의 제언에 대해 고민해야 봐야 할 것임<sup>1)</sup>.

1) ‘욕먹어도 짠 지역 상징 조형물’, 경향신문, 202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92033025&code=990100&s\\_code=ao31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92033025&code=990100&s_code=ao319))

- ② 난지한강공원 지명공모(2억원) 사업은 '21년 약 100억원의 작품설치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전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므로 이번 추경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임.

편성된 2억원은 대행사를 선정하여 i) 작품공모와 ii) 타당성 조사를 7월에서 10월 사이에 끝내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있을 타당성 검토, 투자심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작품설치를 위해 약 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이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市 투자심사를 받았어야하나,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이러한 과정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추경사업에 끼워넣기 식으로 슬쩍 사업을 편성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국내작가나 신진작가가 아닌 ‘국내외 유명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라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사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사전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추경편성 취지와 동떨어진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 지난 2018회계연도 우리위원회에서는 중도 폐지한 ‘서울의 시작 프로젝트(10억원)’ 공공미술작품 설치비용에 대해 사전절차 불이행, 재무건전성, 정교하지 않은 사업계획 등 다수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 바, 이번에도 편성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행태가 보이므로 심히 우려되는 바임.
- 서울디자인산업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디자인 분야 개인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긴급지원하여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활로와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라이프스타일 제안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2,000,000원*500개 = 1,000,000천원
	○우수 제안 아이디어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22,000,000원*40개 = 880,000천원
	○사업 홍보, 심사, 설치 등 운영비 120,000,000원 = 12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지원관련 상대적으로 소외된 디자인산업계 긴급 지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① 1차 라이프스타일 제안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② 1차 당선작 중 우수 제안 아이디어 40건을 선정하여 서울디자인재단의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상품화, ③ 사업 홍보, 심사, 설치 등에 대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음.

- 집행부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자료를 토대로 전국 디자인전문기업의 58.7%가 서울에 소재하며 이중 72.4%가 4인 이하 기업으로 전국 디자인기업 매출액 대비 서울 소재 디자인전문기업의 매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67%로 지속적으로 정체·감소하고 있어 서울 영세 디자인기업을 지원하면 전국적으로 60%를 지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였음.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등은 문화본부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면담('20.5.8.)에서 “개인 창작이 중심인 디자이너는 외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고”, “4인이하 영세기업에 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음.

-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부기관 각 부처에서는 임대료, 금융, 세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지난 29일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각종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임.
- 동 사업은 1인 창조기업 및 5인 미만 디자인 기업지원으로 여타 국가 및 시 차원의 지원시책과 중복수혜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지원대상과 분야에 대한 면밀한 계획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신진미술인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신진미술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하여 긴급 생계지원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유희공간에 일상적인 전시를 통해 신진미술작가들의 활동기회 보장으로 서울시 미술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자료 보험가입비 자료가액 900,000,000원* 0.35%	=	3,150천원
	○자료평가위원회 위원수당 5개분야*5인*300,000원	=	7,500천원
	○전시기획비 회당 15,000,000원*5회	=	75,000천원
	○자료운송비 회당 1,000,000원*10회	=	10,000천원
	○기타 사무용품 및 회의비 등 4,350,000원	=	4,350천원
	증감사유		
작품 구입 사전 절차 및 전시 관련 소요 비용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작품구입비 점당평균 3,000,000원*300점	=	900,000천원
	증감사유		
	작품 구입비용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① 유망 신진미술작가 작품 300점 이상 공개구입(서예, 판화, 사진, 한국화, 서양화 5종), ② 서울시내 유동 인구가 많은 유희공간 발굴 및 확보(시립병원·청사 로비 등) ③ 구입한 미술작품을 활용으로 공간 콘셉트에 맞는 기획을 통한 일상전시 개최를 하고자 함.

-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 자료에<sup>3)</sup> 따르면 2019년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7%(629억원) 감소하는 등 미술시장의 장기 침체 흐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내 공·사립 미술관이 2월부터 85% 휴관(40개소 중 34개소)하고 있으며, 각종 미술강좌가 취소되고, 창작공간의 대관이 중단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전문 대여기관을 통한 예술가들의 작품 대여도 검토하였으나, 예술가가 아닌 전문 업체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입하려는 것임.
- 신진미술작가들을 위한 직접 지원으로 동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은 하나, 유물 및 작품에 대한 시립시설의 수장률이 평균 85%(서울역사박물관 95%, 청계천박물관 95%, 시립미술관 65%)로 수장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sup>4)</sup> 작품성에 차이는 있다지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12년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 총 1,208점은 수장고에 보관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3) ‘믿을건 김환기 뿐...2019 미술품경매시장 급감’, 헤럴드경제, 2019.12.3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30000806>)

4) 과제5, 「박물관도시, 서울」 조성, 2019~2022 서울시정 4개년 계획, p302

이번 추경을 통한 이 사업의 작품전시를 위한 서울시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유희 공간과 전시기간에 대한 수요를 이제서야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추경을 통해 작품 300점 구입 이후 2021년에는 작품을 구매할 계획은 없으나, 작품에 대한 보험료와 설치비는 매년 발생하는 등 중장기계획 없이 선 예산편성 후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자칫 구입하는데 급급하고 연내에 전시(11월~12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됨.

- 언론보도에서 “예술가들은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듯이<sup>5)</sup>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기반지원’ 사업과 ‘예술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작품제작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적인 전시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 소장 작품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유희공간은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 사업 내 시민발굴단이 있으므로 작품이 아닌 공간 수요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전시할 필요가 있음.

---

5) ‘전업작가들은 1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전남매일, 2019.12.17.(<http://www.jndn.com/article.php?aid=1576570675292159043>)

- 책방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울지역 서점 및 출판업체의 지원을 통해 서점-출판 생태계 선순환 등 책방 활성화를 위해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 무 관 리 비	○도서 선정·구매 및 보급 100종*5,000,000원 = 50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출판·서점을 위한 지원

-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 소재 중소 출판사의 우수도서를 지역 서점(100여 개소)에서 구매하여 서울시 취약계층 시설(100여 개소)에 보급(1개소 당 330여권)하고자 하는 것임.
- 전국 동네책방 매출이 60%까지 줄어들었고, 동네책방은 참고서 매출이 큰 곳인데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참고서 매출도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생활화되면서 대면 업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6)</sup>.
- 4월 지역서점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입을 조기 집행하고 도서정가제로 구입해 줄 것과, 3월에는 책 한 권도 못 판 날이 많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임대료,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음.
-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지난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① 「2020책방 활성화 사업」을 통한 조기지원 및 지원확대(120개소), ② 「한 평

6) '13년 된 '한강문고'도 달아...동네서점, 코로나19로 이중고, 중앙일보, 2020.5.11.(<https://news.joins.com/article/23773246>)

시민 책시장」과 연계한 청계천 헌책방 구매지원(16개소), ③ 카카오와 ‘30일 랜선 북클럽’을 통한 동네서점 홍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sup>7)</sup>, 이번 추경을 통해 도서를 직접 구매하여 지역서점 매출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임.

다만, 대상이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한부모 생활시설, 다문화센터 등 서울시 취약계층 시설에 희망하는 도서를 선정하여 납품한다고 하나 자칫 구입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업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오히려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일 내에 읽고 울산도서관에 제출 시 구매금액 전액을 울산페이로 환불해 주는 사업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sup>8)</sup>.

이는 진정 책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책을 구매하고 책 구매 비용을 돌려주면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 서울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절로 제로페이 홍보가 되며, 돌려받은 책을 서울시 취약계층 시설에 보급하면 사업 취지와도 맞고, 지역서점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 계획안(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3278), 2020책방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지원 계획(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3548)

8) ‘울산시, 책값 돌려주기로 동네서점 살리기 나서’ 파이낸셜 뉴스, 2020.05.28.(<https://www.fnnews.com/news/202005281052225748>)

### (3) 그 외 사업

#### ○ 그 외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디자인재단출연금(5억 4천2백만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5억 3천3백만원),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3억 3천7백만원) 등  
 총 3건, 14억 1천2백만원이며, 이번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145억  
 4백만원의 9.7%에 해당함.

#### <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1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34,881,827	34,340,000	541,827	• DDP 내 소상공인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에 따른 보전 (24개소)
2	강서문화예술회 관 건립 지원	3,065,500	2,532,500	533,000	•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금 중 시비잔여분 편성 -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건립비 감액 반영
3	통일문화센터 (문화관) 건립	1,867,500	1,530,500	337,000	• 부지매입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증액 - 2필지 중 1필지에 대해 기존 소유권자와 이견 있었으나, 재협의를 통해 '20년 4월 매매계약 체결
합계		39,814,827	38,403,000	1,411,827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재단이 관리수탁하는 DDP가 시설임대료, 대관료 등으로 발생한 자체 수입을 시설물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지출·충당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시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정책<sup>9)</sup>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6개월간 임대료 50% 및 공용관리비를 감면 시행하여 DDP내 24개소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하고자 기정예산 343억 4천만원에서 5억 4천2백만원이 증액된 348억 8천2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9)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공기업담당관-2847, 시장방침 제41호)

-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은 1자치구 1문예회관 건립 원칙에 따라 강서문예회관을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25억 3천3백만원에서 5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된 30억 6천6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강서문예회관 건립은 계획변경으로 당초('13년) 대비 사업이 지연되어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연면적이 감소되면서 시비 보조금은 줄어들었으나 자치구 부담분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자치구 재정이 부족하여 '21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은 통일과 관련하여 현재 및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체험프로그램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8월 매각의사 철회지에 대한 매매협약이 2020년 2월에 다시 진행됨에 따라 기정예산 15억 3천1백만원에서 3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된 18억 6천8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 <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 규모 현황 >

※ 기존 건립안으로 재변경하여 용적을 낮추고 연면적 확대[580㎡→667㎡(87㎡ 확대)]

항 목	기 존		변 경		비 고
대상지 및 대지면적	225㎡ (68평)	수유동 527-32 (225㎡)	506㎡ (153평)	수유동 527-32(225㎡) 수유동 527-39(281㎡)	· 매각의사 철회('19. 08.) 후 사에 매 매 재협의 요청('20. 02.)
건폐율/용적률	58.64%/200%		53.31%/75.68%		· 법정 60%이하/법정 200%이하
규모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시설면적	580.08㎡/437.38㎡		667.52㎡/526.63㎡ (87.44㎡확대/89.25㎡확대)		· 시설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한 사 용면적
부설주차	자주식 4대		자주식 5대		· 시설면적 100㎡ 당 1대

부지매입으로 개관일자가 변경('22.1월 → '22.9월)되고 총 건립비가 증액(4,353백만원 → 4,700백만원)된 만큼 사전절차상 누락되지 않고 향후 일정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더 이상 일정 변경이나 예산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마. 종합검토의견

### ○ 2020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사업 8건, 37억 1천2백만원,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임대료 등 임대료 감면에 따른 감액사업 2건 3천2백만원으로 총 10개 사업, 36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8건, 63억 9천2백만원,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및 증액사업 4건, 77억원, 그 외 서울 디자인재단 출연금 등 3건 14억 1천2백만원으로 총 15개 사업 145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4개 사업 중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와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사업은 금년 제2회 추경에서 소외된 미술분야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월드컵 공원에 대한 작품공모(30억원)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바가 없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은 장르인데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함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 중 난지공원에 설치하는 작품 공모의 경우, 이번 추경에 편성될 이유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 市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채 유사사업에 끼워넣기 식으로 부적절하게 편성됨은 심히 우려되는 바임.

정부는 2011년 ‘예술인복지법’을 만들고 지난 5월 ‘예술인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생고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본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한 이러한 땀질식 지원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술생태계 자체의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긴 안목의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